

J프로젝트 블록별 개발 안된다

골프장·카지노 중복 배치, 개발 연계효과 떨어뜨려

해남·영암 일대에 조성되는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계획(J프로젝트)의 주요 시설들이 상호 연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복 배치돼 있어 개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적 성격을 띤 골프장과 카지노 등 주요 레저·위락시설이 개발 주체에 따라 지리적으로 분산돼 있어 집중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광객 집중 효과가 높은 시설을 한 곳에 집중 배치, 기업도시 전체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남도의 'J프로젝트 중간용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영암군 삼호읍과 해남군 산이면에 맞닿아 있는 영암호 수변에는 F1(포클러 원) 경주장을 비롯해 전경련 컨소시엄이 주도

하는 카지노복합단지·해양스포츠타운·골프 커뮤니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남군 산이면 금호호 제1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전담개발공사 컨소시엄 개발 단계에는 마리나·카지노호텔·테마파크 등이, 금호호 수변을 따라 골프장과 항공레저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배치 계획대로라면 영암호 인근과 금호호 1방조제 주변에 각각 카지노 시설, 영암호 인근의 골프커뮤니티와 금호호 수변의 골프장 단지가 중복됨으로써 연계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테마파크도 영암호와 금호호 인근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등 동일한 시설이 지구별로 분산돼 J프로젝트 전체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도



여기에서 J프로젝트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시설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관광객 집중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18홀 기준 14개로 계획돼 있는 골프장의 경우 분산 배치보다는 집중 배치해야 하며, 카지노와 호텔 등과 연계시켜 동반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골프장을 집적화할 경우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특혜·법인세 감면조치에 의해 이용료를 낮출 수 있어 가까운 중국 상해나 해남도 등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골프 관광객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선 전남도 기업도시과장은 "단지별 특정 시설의 중복 배치로 개발효과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계획 확정단계에서의 의견을 모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골프장 집중 배치 의견도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 다만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착취기자 unipark@



할아버지 주차단속 실습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광주시가 마련한 '불법주차차 금지 계도활동'에 노인들이 참여해 14일 오전 중심사 입구에서 현장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회 활동하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인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광주시가 마련한 '불법주차차 금지 계도활동'에 노인들이 참여해 14일 오전 중심사 입구에서 현장 실무교육을 받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3회 활동하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아파트 공시價 작년 수준

'세금 폭탄' 피할 듯...남구 포스코 45평형 29% 크게 올라

수도권 최고 60% 급등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재건축을 비롯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과 수도권 등은 공시가격이 40~60%나 올라 집 주인에 대한 보유세가 최고 2배나 높아지는 등 '세금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07년 공동주택 가격안'에 따르면 광주는 남구 봉선동을 비롯한 일부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소폭 올랐을 뿐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보합세를 보였다.

광주 남구 포스코더샵 45평형(기준층)이 3억2천900만원으로 지난해 2억5천600만원보다 29%(7천300만

원)나 올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까지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40평형은 지난해 2억200만원에서 2억1천300만원으로 5.4%(1천100만원) 올랐다.

하지만 광주 남구와 서구의 일부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광주·전남 대부분 보합세를 보이거나 소폭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집값 안정세가 두드러져 폭등 추세를 보인 수도권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해 집값 담합이 상대적으로 빈번했고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높았던 경기 군포시와 과천, 안양, 일산 등에서 공시가격이 50% 이상 오른 곳이 많았다.

또 서울 양천구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은 30~50% 가량 상승했으며, 공시가격이 6억원에서 올해 9억2천만원으로 오른 양천구 목동 신시가

지 7단지 35평형은 보유세가 148만8천원에서 444만원으로 198.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주택 소유자들은 건교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우편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조사를 거쳐 4월30일 최종 공시 가격이 확정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우일학원 장학 67년 역사인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mb.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stn.ac.kr

美 '모기지 쇼크'... 세계 증시 폭락

중 금리인상 예고 '제2 차이나 쇼크' 우려도

코스피 28P 급락 1407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 등의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다. 또 중국 금용당국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어서 '제2의 차이나 쇼크'도 우려된다. <관련기사 11면>

14일 국내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28.68포인트(2%) 하락한 1407.37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지수도 7.10포인트(1.14%) 떨어진 613.31로 마감했다.

도료 증시도 전날 뉴욕 주가의 급락 영향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엔고(高) 행진이 진행되면서 닛케이 평균지수가 전날보다 501.95 포인트(2.92%) 내린 16,676.89로 장을 마감했다. 아울러 세번째로 큰 하락폭

▲서브프라임 모기지=신용도가 낮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규모는 약 6천억달러로 전체 주택 담보대출 시장의 20%에 해당된다. 미국에서 신규 모기지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율은 2000년 2.6%에서 지난해 13.5%로 크게 늘었다.

이다.

또 중국 증시의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1.97%(58.46P) 하락한 2,906.33를 거래를 마치는 등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항셱 등 대부분 아시아 증시도 2%이상 하락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전발전 12년만에 끝내 분리

광주·전남발전연구원(광전발전)이 통합된지 12년 만에 분리된다.

광전발전은 1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전발전 회의실에서 이사회(이사장 박준영 전남지사)를 갖고 광전발전 분리를 원안

대로 가결했다. <관련기사 3면> 광전발전 이사회는 2007년 추경예산안 등 3개 안건을 처리한 뒤, 30여분 동안 광전발전 분리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투표를 통해 분리를 결정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기자의 길

광주일보와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경력기자 모집 내일 마감
모집 요강 www.kwangju.co.kr

www.park1004.com
가족보안묘원 특별분양!!
062-521-1100

대부분이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금계포탈형」의 아름다운 청계공원
062-521-1100